

(그리스도인의 감사)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농사나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니, 추수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과 삶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너무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서에서도 감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3대 감사절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Passover):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3-4월)

맥추절(초실절, 오순절): 첫 곡식의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6월)

수장절(초막절): 한해의 곡식과 열매를 저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9-10월)

이렇게 감사는, 한 해 내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수많은 감사가 있지만, 금년의 감사절말씀인 로마서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두 가지 감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I. 율법과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를 부른, 복음가수 <소향>은 한 기독교체널에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경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중요성과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두르마리 한 쪽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을 필사한 서기관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두르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사(敎會史)를 통해서 보면, 우리 손에 성경이 우리말로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엔 매우 잔혹(殘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세(中世)시대가 어두웠던 이유는, 카톨릭교회가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신자는 모국어(母國語)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은 함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중세 교황청(敎皇廳)**은,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평민들이 자기나라 말로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禁止)하였습니다. 성경번역자는 이단(異端)

으로 규정되고, 체포(逮捕)되어 고문(拷問)받고 처형(處刑)당하거나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이들 중 3사람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 1320-1384) :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중세영국 신학자입니다.. 위클리프의 번역덕분에, 대중이 성경을 읽게 되었지만, 본인은 사후(死後) 44년후, 1428년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고,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파내, 시신과 저서를 모두 화형(火刑)에 처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얀 후스와 마틴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종교개혁의 새벽(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이라 고 불립니다.

존 후스 (Jan Huss, 1372-1415) 그는 중세 보헤미아(현 체코)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학자, 성경번역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후스는 프라하 베들레헴교회에서 체코어로 설교합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 및 위클리프의 저작을 체코어로 번역, 평민들이 성경을 직접 접하도록 힘썼습니다.

후스는, 그후 교황청의 면죄부를 비판하다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 후, 콘스탄틴 공의회에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참석하였으나, 도착 후 체포되어 1년간 투옥, 고문당하였으나, 자신의 사상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1415년 7월 6일, 오늘날 독일 남서부에 해당하는 콘스탄츠(Constance/Konstanz)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위해 죽으라!”는 마지막 신앙고백을 남겼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에는 그의 순교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의 죽음이후, 체코와 보헤미아에서는 혁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중세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그의 신념은 후대에 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William Tyndle, 1484-1536)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스어 신약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로, 그도 카톨릭당국에 체포되어 화형(火刑)에 처하여졌습니다. 틴데일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를 남겼습니다.

틴데일의 기도는 사후 1년뒤에 헨리 8세에 의하여 '매튜 성경(Matthew Bible)'으로 사후 3년엔 '대성경(Great Bible)'으로 그리고 75년 후인 1611년엔 당시의 왕인, 제임스왕의 명령으로, 표준영어성경(標準英語聖經)이 발간이 됩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KJV)이라고 합니다. 1611년에 출간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틴데일의 번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KJV 번역 위원들은, 성경을 새로운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어 성경들을 검토하며, 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틴데일의 번역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KJV신약성경의 약 80~90%가 틴데일의 번역을, 그대로 혹은 거의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번역이 현대 영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손에 성경(聖經)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말씀에 대한 존중함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썼을 때, 그의 논지의 대부분은, 구약성경에서 가져옵니다.

로마서엔 대략 60-70번의 성경인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어떤 서신들보다 많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이르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등의 표현으로, 성경을 강조하고 인정하고 인용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호세야 등 다양하게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그는 보통 히브리어 구약본문에서 직접인용하

지만,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LXX)으로도 자주 인용합니다 (때로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의역을하거나 (paraphrase) 주관적 해석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의(義)의 법(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律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호칭(呼稱)이 등장합니다. 1)“의의 법” 2)“율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서, 믿음으로 의(義)에 까지 이르러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의(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는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였기에 <부딪칠 돌에 부딪친 것>입니다.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것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의의 법도 가진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의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감사입니다. 다시 30-31절을 봅시다.

II. 의(義)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律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의(義)를 주목(注目)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스라엘)들과 이방인을, 의(義)라는 관점에서 구별(區別)하고 있습니다.

1)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의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합니다.

2)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입니다. ‘**의(義)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義)를 얻지 못하였고, 의(義)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義)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反轉)이 아닙니까?

로마서의 핵심구절(核心句節)의 하나인, 로마서 1:16-17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福音)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福音)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福音)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자랑스러워 하려면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외친 데에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救援)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지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복음(福音)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義)를 빼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의 복음의 두 중요단어는, 의와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방식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르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따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읽으신 바처럼, 전자는 이방인이고 후자는 유대인(이스라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의외의 결과나 나왔다는 것이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의롭게 살지 못한) 이방인은 의를 얻고, 의를 따르려고 힘썼던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심이 그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8-9)

진화론에선, 인간을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진화로 설명하지요. 이것을 빗대서 사고가 매우 단순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왜 단세포적으로 모든 것을 보느냐고 책망하거나 조롱합니다. 위의 구절은 인간의 단세포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이중(二重)의 목적(目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멋지고 지성적인 청년(靑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만만합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보다 훨씬 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수(高手)는 문제를 하나 냅니다. 난이도(難易度)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는 함정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고수가 문제를 내는 목적은, 이중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풀면 푸는 것이고, 둘째는 풀고 풀다가 두 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十誡命)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켜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하라! 와 하지마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실행(實行)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문제(問題)에 봉착(逢着)하게 됩니다. 점점 수렁에 들어갑니다. 표리부동(表裏不同)하게 됩니다. 회(灰)칠한 무덤이 됩니다.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이것을 지켜보

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고민(苦悶), 갈등(葛藤), 좌절(挫折)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할 때에 드디어 등장(登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참새가 봉황(鳳凰)의 뜻을 어찌알리요!**

참새들은 짹짹 거립니다. ‘행위구원’, ‘행위구원’ 하고.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 안돼 하면서 짜깁거리며 완전한 행위의 표피만을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의지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칠 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친다고 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있죠? 돌과 바위에 부딪치면, 아프죠. 누가 깨어나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 머리와 몸이 깨지기를 바라서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두 번째 목적은 훨씬 원대(遠大)한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8:13-15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봅시다.

“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덮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남북왕국(南北王國)이, 다, 하나님이 ‘걸림돌’, ‘걸림반석’이 되고, 함정(陷穽)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롬 9:33)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이사야 8:14)”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9:33절의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에서 시온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시온에 드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16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춑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에 둔 기초돌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 즉 자신의 의를 세우려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한 돌>, <기초석>, <시험한 돌>, <견고한 기춑돌> 등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돌이 죽이는 돌일 뿐 아니라, 살리는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I lay in Zion for a foundation a stone, **a tried stone**, a precious corner stone, a sure foundation: he that believeth shall not make haste.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믿는 이에겐 기춑돌이 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선지자는 시온에 세워지는 이 돌은 기초석이요,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은 아무 돌이나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강도와 질이 철저히 검증된 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건축가가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히 테스트하여 합격시킨 돌입니다. a precious corner stone입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2:6-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행위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교조주의자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고 거룩을 지향하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지하며 삽시다.

복음은 걸림돌인가? 주춧돌인가?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이 뭐가 그리 쉬워 믿기만하면 된다고 ?

그러나 복음은 그리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경륜가운데 나타난 인류최대의 거대 project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문화나 문명에 비견할 바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초이성적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 봉향의 뜻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